

전투기 개조 사업 활발 - 수명연장 및 예산절감에 유리 -

세계 적으로 軍用機의 사용년수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 공군이 보유한 항공기의 평균사용년수는 1982년말의 13.1년에서 1992년말에는 17.3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증가 원인은 新型機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 기존 보유한 항공기와 쉽게 교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연습기나 수송기 등에 비해, 전투기는 新造機로의 교체율이 높으나 이것도 10년 이상 사용되는 것이 절반 가까이 이른다.

여기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군용기의 수명연장이 낮은 전투기를 단순히 비행가능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電子시스템의 근대화를 바탕으로 하는 지속적인 성능향상 노력이다.

수많은 성능향상계획에는, 신형엔진으로 換裝한다든지, 空力的인 개선을 통해 비행성능을 높이는 방법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첨단 전자시스템의 장비가 가장 우선한다.

대부분 국가의 경우 부족한 예산으로 비행성능을 향상시키는 것 보다는, 신형레이다를 장비한다든지 항법·폭격조준장치나 Cockpit표시장치 등을 근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속도라든가 운동성을 어느정도 향상시키기 보다는, 목표의 탐지능력향상과 공격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위력의 강화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경제적인 전투기로 약 2,600대가 생산되어 세계 여러나라에 수출된 노드롭社의 F-5에 대해서는 근대화개조를 제안하고 있는 회사가 10개社를 넘고 있다. (pp. 44~51 참조)

또한 프랑스의 미라쥬 III 전투기에 대해서도 수주획득경쟁이 치열하다.

F-5나 미라쥬 III 전투기의 근대화 개조비는 대략 1대당 300만~500만불로 신형전투기 구입의 數分の 1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냉전 종결에 따른 군사비 삭감의 영향을 받는 방산업체들이 성능개량 시장에 눈을 돌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움직임은 러시아의 MiG-21에서도 볼 수 있는데 미꼬얀 설계국에서는 Radar 등을 새로이 장착한 MiG-21 I를 개발하여 인도에 판매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IAI社도 MiG-21에 新型 레이다를 부착한 MiG-21 2000이라 부르는 성능개량형을 개발하고 있다. *

서방측의 F-5와 함께 러시아에서도 新型 레이다 장착등을 통한 MiG-21의 성능 개량사업이 활발하다

